



경제학은 과학인가?

「경제원론1」과 「과학과 철학」강의페어링
국어국문학과, 이유정, 201521541, 이진희교수님 지도

목적

사람들은 흔히 경제학을 과학과 연관 지어 생각하고, 경제학을 과학이라 여긴다. '경제원론1'을 수강하면서 많은 이론, 그래프를 접하였고 그 내용과 과학을 연결시키며 '이것이 진정한 과학일까?' 라는 의문을 가졌었다. 그러던 중 '과학과 철학'에서 과학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3가지를 배웠고, 그것을 경제학에 접목시켜 경제학이 과학인지를 알아보려 한다. 특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되는 예를 들어 그 답을 찾고자 한다.

귀납주의, 반증주의, 패러다임론

-귀납주의

귀납이란 간단히 말해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 일반화된 법칙을 찾는 것으로 과학을 설명한다. 예를 들어 '지금까지 관찰했던 까마귀는 모두 검정색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까마귀는 검다'는 일반적인 법칙을 찾는 것이다. 이 과정에서 귀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닌 개연적 관계로 전제가 결론을 그럴듯하게 지지해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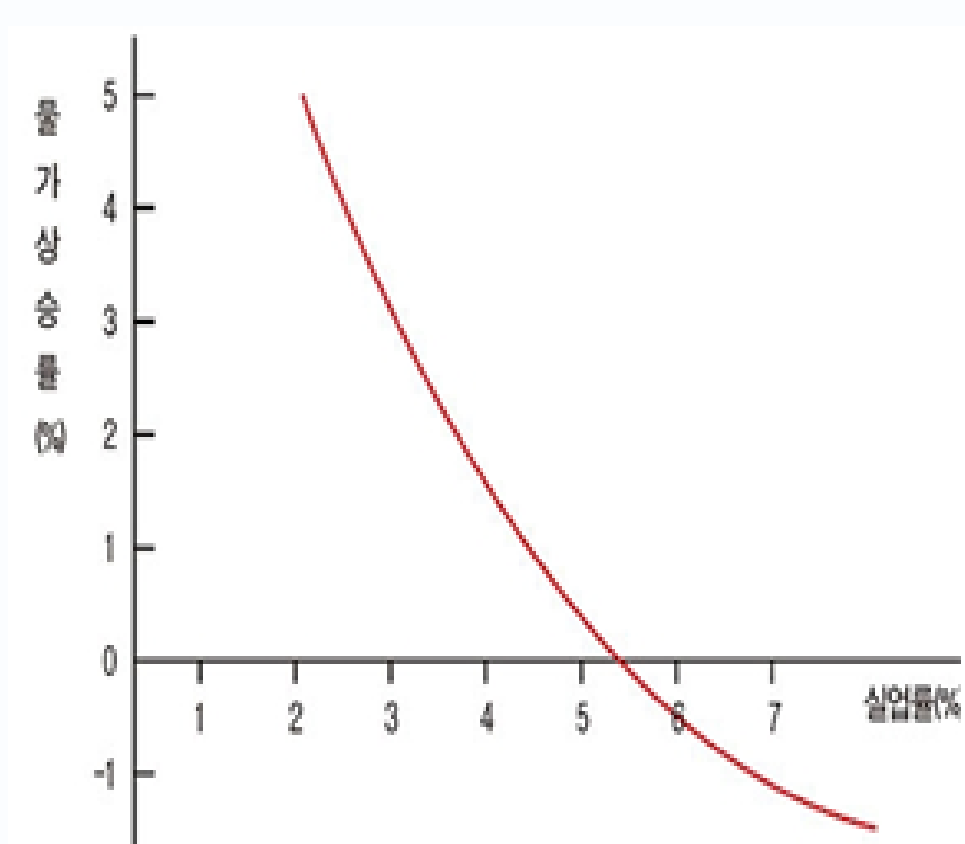
-반증주의

반증주의란 가설이나 이론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해 지속적인 확인을 받게 되며 반증된 가설이나 이론은 더 우수한 가설이나 이론으로 대체되어 과학이 발전한다는 과학관이다. 반증주의는 과학의 출발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, 추측과 반박을 통해 과학이 진보한다고 믿는다.

-패러다임론

패러다임론이란 어떤 언어관이나 세계관을 아우르는 틀을 말한다. 패러다임론은 과학 진보의 혁명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혁명은 하나의 이론구조가 포기되고 그 자리를 양립 불가능한 다른 이론이 대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의이다.

필립스 곡선 : 귀납, 반증주의



‘필립스 곡선’이란?

실업률과 화폐임금 상승률 사이에는 매우 안정적인 함수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으로, 실업률과 화폐임금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률의 반비례관계를 나타낸다.

➡ **귀납주의** : 여러 차례에 걸친 경험과 관찰의 점들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고, 이로서 법칙화 되었으므로 귀납주의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.

귀납주의의 반례 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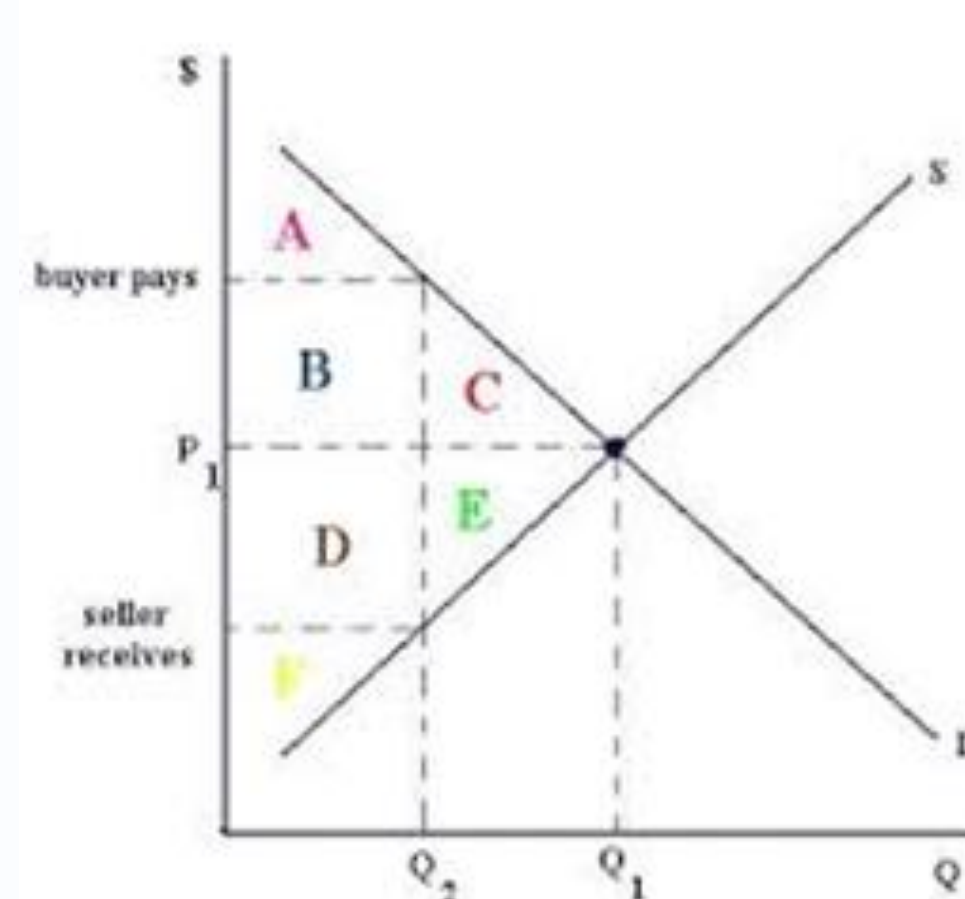
‘스태그플레이션’

스태그플레이션이란?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를 말한다. -> 귀납주의로 설명 불가능.

반증주의 적용

➡ **반증주의** : 필립스 곡선의 경우 반증 가능성이 존재한다. 또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반례를 통해 이론이 변화되고, 발전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반증주의적 측면으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.

자중손실 : 패러다임



‘자중손실’이란?

정부가 과세를 했을 때 소비자와 공급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소비자와 공급자 그 누구에게도 부담되지 않는 버려지는 이익을 뜻한다.

(C+E 부분)

비과학적 요소

➡ **반증주의 (애드혹 수정)** : '자중손실'이라는 개념은 설명 불가능한 C,E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.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니 이 경우에만 맞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. -> 반증주의로 설명 불가능.

패러다임 적용

➡ **패러다임** : 관성이론 이후에 발전된 중력이론으로 행성 궤도가 설명된 것처럼, 좀 더 발전된 이론으로 보충되거나 대체되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. 자중손실을 포함할 수 있는 이론이 개발된다면, 그 패러다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것이므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.

결론

자중손실 그래프를 보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이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“경제학은 과학의 범주에 속한다.”는 것이다. 두 가지 예 모두 하나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, 다른 이론을 적용시키면 과학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. 이것은 과학적 이론 3가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이므로 경제학은 결국 과학의 범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. 지금의 논쟁은 어느 모형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, 어떤 모형이 적용되느냐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다.